

임실군표 마스크 특별대책 호응

전 군민에게 직접 배달로 마스크 무상제공... 마스크 단비행정, 유관기관으로 확산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상배부하는 임실군표 마스크 단비 특별대책이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마스크 대란에 따른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상제공기로 하고, 줄을 서는 형태가 아닌 집집마다 직접 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실군은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무상제공기로 하고, 줄을 서는 형태가 아닌 집집마다 직접 배부하고 있다.

이후 2주여만에 전 세대, 전 군민에게 마스크가 배달됐다. 당초 임실군은 주민들에게 세대당 5매씩 지급기로 했으나, 실제 배부 부수는 더 많아져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마스크 단비'라는 호령이 쏟아지고 있다.

이후 2주여만에 전 세대, 전 군민에게 마스크가 배달됐다. 당초 임실군은 주민들에게 세대당 5매씩 지급기로 했으나, 실제 배부 부수는 더 많아져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마스크 단비'라는 호령이 쏟아지고 있다.

2,360개를 세대당 4장씩 배부하고, 1차에 3장을 받은 세대의 경우 1장씩 추가 배부했다.

이어 3차는 오는 20일까지 1~2인 세대의 경우 1개, 3인 세대는 3개, 4인 세대는 4개, 5인 세대는 5개씩, 8인 이상은 8개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면마스크(1만개), 일회용 일반마스크(1만 2,356개)가 추가로 배부된다.

임실군의 마스크 무상제공 정책은 마스크 대란을 예고한 심민 군수의 선제적 준비와 대응이 있어 가능했다. 임실군의 마스크 단비행정은 유관기

관으로 확산되며 지역사회 전반에 훈훈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지난 17일 임실치즈밸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인호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며 마스크 1,000개를 기부했다.

심민 군수는 "더 많은 마스크를 드리고 싶었지만, 확보하는 데 무척 어려움이 컸다"며 "그래도 전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한 만큼, 다소나마 코로나 지친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관내 음식점 '월화수목금토일cafe', 위생등급 '매우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위생상태 평가해 등급 지정

순창군 관내 음식점 중 한국인 '월화수목금토일cafe'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에서 별 3개인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매우 우수' 등급은 관내 음식점 중에서는 처음으로 획득한 것으로, 이번 등급 획득에 따라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결 및 위생에 대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 후 공개·홍보하는 제도다.

음식점 간 자율경쟁으로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들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업자가 위생 등급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 조리장 및 객석, 객실 위생상

태 등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 우수', '우수', '중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된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는 위생등급제 표지판을 제공하고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위생용품 지원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순창군에는 '강천산(대구)휴게소 푸드코트', '강천산(광주)휴게소 푸드코트' 2곳이 '우수' 등급을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시 직영체제로 운영

남원시는 최근 내부감동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내홍을 겪은 사)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지난 13일 민간위탁 종료와 동시에 3월 14일부터 시 직영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촉 및 제1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며, 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네트워크의 구축과 민

간의 전문성을 활용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단체 대표와 자원봉사 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지역 인사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020년 사업계획 보고 등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위원장에는 김진석 씨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은 오재명 위원이 선출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과 관련한 사항 등을 의결한다.

이환주 시장은 "비가 온 뒤 땅이 굳는다며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성숙해 가는 계기가 되어 더 아름다운 실천과 고르게 행복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공모 선정

2024년까지 미디어아트 전시시설 설치·상설 공연프로그램 등 운영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서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어현동 소재 남원관광지 일원에 미디어아트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상설 공연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예산은 국비 100억, 도비 30억, 시비 100억을 포함하여 총 23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에서는 대표적인 핵심인프라 사업으로 남원 컨벤션리조트 옆 구)비사별콘도 유휴부지 지하공간을 재생, 남원의 스토리를 IT와 융합한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시설과 지상 1층에는 시민쉼터 및 편의공간과 옥상 꽃빛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이와 함께 사람의 광장에는 남원시의 랜드마크가 될 사람의 종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모노레일 주변에는 테마별, 이벤트성 랜드마크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원의 대표적인 마당극으로 '달빛전설'이라는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남원관광지 연

계코스개발, 광한투원과 남원관광지를 연결하는 전기차 운행, 관광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등도 추진된다.

남원시는 사업추진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을 통해 연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2024년까지 핵심 및 인프라 사업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공모에서는 남원시를 포함해 8곳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남원지역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관광투원과 남원예촌, 김병중 시립미술관, 옛다솜 이야기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활용 가능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데다, 남원관광지에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관광협의회 및 공동체 지원센터 등 민간조직 활동과 남원시의 철저한 준비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랜드의 변화와 시설의 노후화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남원관광지 공간을 재창조함으로써 남원관광의 차별화와 매력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치즈과학고와 협약 체결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는 지난 17일 연구소 회의실에서 한국치즈과학고 유가공 인재육성 및 유제품 가공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임실치즈&식품연구소와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이 포함된 상호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협약을 통해 연구소와 치즈과학고고는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70시간에 걸쳐 유제품의 기본이 되는 유가공학 일반, 낙농 미생물학, 치즈 제조 및 숙성 이론, 발효유 가공론, HACCP 및 작업장 위생교육 등 이론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가우다 치즈, 베르크 치즈, 라플렛 치즈, 까망베르 치즈 등 약 16종의 유제품 제조 실습 교육도 이뤄진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다양한 세계치즈를 접할 수 있는 치즈 클래스 및 유제품 케이터링 실습, 치즈를 이용한 요리 실습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청년영농실습농장 조성 순항

예비청년귀농인 농지 직접 경작·영농 경영 위해

순창군이 점차 늘어나는 청년 귀농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청년영농실습농장을 조성해 지역내 청년층 확산에 앞장선다.

군은 귀농인들의 연령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해 예비청년귀농인들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며 영농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1만6,000㎡ 규모로 농장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조성중인 농장은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 일대에 관리사와 참고 등 시설물 2동과 농지 정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장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영농기술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순창의 군유지를 활용해 실습농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군은 같은 해 8월 부지내 토지 합병을 마치고, 12월 시설계용역을 완료해 올해 2월부터 시설품사에 본격 착수했다.

8월 준공을 앞두고 청년실습농장은

관리사와 참고 등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기 전, 부지내 농지정리가 마무리되면 청년농가들에게 농지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실습농장이 예비청년귀농인에게 미리 영농을 체험하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볼 예비 시험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귀농인 유치전략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실습농장 조성외에도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지부터 소득사업지원, 창업자금, 도시농촌청년 공동 삼라캠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도 귀농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역민과 갈등관계로 고생하는 귀농인을 위해 갈등해결 전담반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실습농장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5~6월내에는 순창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청년귀농인들에게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이환주남원시장, 의료원 의료진 격려·환자 쾌유기원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이 18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돼있는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하며 대구 코로나 환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의료원에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이송된 코로나19 대구 경증환자 50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의사 20명과 간호사 64명은 병원 안에서 생활하며 환자들이 퇴원할 때까지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의료진들에게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이 깊이 감사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남원의료원에 특별물품(향균티슈, 의료진복, 환자용품 등)을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